

주간 통일정세

2016-16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내용 | |
|---|--|---|---------------------------------------|
| 정치 | 4.17 | 北, 당대회 앞두고 네쌍둥이 띄우기...조국에 기쁨(연합뉴스) | |
| | 4.19 | 北김정은, 제7차 당대회 평안남도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 |
| | | 36년만의 北 당대회 나홀로 행사될 듯...초청외교 동향 없어(연합뉴스) | |
| | 4.20 | 北김정은, 제7차 당대회 지강도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 |
| | | 北 김정은, 제7차 당 대회 평양시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 |
| | | 북, 독일측에 리시홍 대사 교체 통보(미국의소리) | |
| | | 北, 남수단 신임 대사에 김철호 임명(연합뉴스) | |
| | 4.21 | 北, 5월 당대회 앞두고 평양 출입통제(연합뉴스) | |
| | | 北 김정은, 쿠바 카스트로 제1비서 재선 축하(연합뉴스) | |
| | | 北, 7차 당대회 앞두고 연일 '김정은 유일영도' 앞세워(연합뉴스) | |
| | | 4.22 | 北김정은, 당 대회 함경남도·황해북도·나선시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
| | | | 北 당대회 언제 열리나...날짜 미공개에 관측만 무성(연합뉴스) |
| 4.23 | | 北김정은, 백두산3호발전소 준공식 참석...제제 세력 후려쳤다(연합뉴스) | |
| | 반기문, 파리기후협정 서명식서 리수용 北외무상과 조우(종합) 北, 日언론에 당대회 평양 취재 허용(자유아시아방송) | | |
| 경제 | 4.18 | 스리랑카, 북한인 운반 거액 달러 압수...4차 핵실험 후 처음(연합뉴스) | |
| | 4.19 | 北, 외국인 방문객 대상 외화벌이 총력전...대북제제 여파(연합뉴스) | |
| | | 38노스, 북니미비아 교역에 제재대상 연루...대표적 허점(연합뉴스) | |
| | 4.20 | 北, 中에 지하자원 '헐값수출'...5년간 51억불 손실(연합뉴스) | |
| | 4.22 | 北노동자들, 이슬람국 쿠웨이트서 밀주 제조 거래(자유아시아방송) | |
| 북중접경 단둥 대북제제 50일...상인들 "변화 피부로 느껴져"(연합뉴스) | | | |
| 사회 문화 | 4.17 | 北, 당대회 앞두고 피어싱·말총머리 단속(자유아시아방송) | |
| | 4.19 | 北, 종업원 집단탈북 이후 중국내 유학생 소환(자유아시아방송) | |
| | 4.20 | 北, 서구풍 배경...자본주의 성향 강한 사람 색출(연합뉴스) | |
| | | 北 황해남도 신천초대소에 6번째 김정은 전용활주로(자유아시아방송) | |
| | 4.21 | 北 당대회 앞두고 군부대서 권총실탄 30발 분실(연합뉴스) | |
| 4.22 | 北공안, 건설자금 조달 위해 과도한 교통단속(자유아시아방송) | | |
| 외교 | 4.17 | 북한 외교관리, 美CNN에 "트럼프 발언 완전히 터무니없어"(연합뉴스) | |

| | | |
|-----------------------------------|---|---|
| 국방 | 4.18 | 北풍계리 핵실험장 차량 인력 2~3배·5차핵실험 가능성 주시(연합뉴스) |
| | | 北 내달 초 7차 당대회에 중국 초청 움직임 없어(연합뉴스) |
| | | 中인민해방군 北中접경 관할 북부전구에 4개 집단군 배치(연합뉴스) |
| | | 러 북한 핵·미사일 실험 실질적 무력분쟁 위험 불리(연합뉴스) |
| | | 교도 "北 러시아에 '당대회전 핵실험 가능성 시사'(연합뉴스) |
| | 4.19 | 노벨상 수상자 3명, 29일 방북해 김일성대서 강연(연합뉴스) |
| | | 美國무부 부장관 北 추기도발시 더 강력한 대응(연합뉴스) |
| | | 미 국무부 北핵실험 준비상황 심각히 간주·도발위험 중단하라(연합뉴스) |
| | | 주한美사령관 지명자 "사드배치 北미사일 위험 다층적 방어"(연합뉴스) |
| | | 中, 北 5차핵실험 가능성에 "정세 악화행위 말라"(연합뉴스) |
| | | 北, 日서 구마모토지진 관련해 反北 조장 유언비어 난무(연합뉴스) |
| | | 日방위상 北추기도발 가능성·경계감시 만전(연합뉴스) |
| | 4.20 | 北 김영남, 지진피해 에콰도르 대통령에 위문 전문(연합뉴스) |
| | | 38노스 "북한 핵실험, 느린 준비와 전격 강행 형태일듯"(연합뉴스) |
| | | 주한美사령관 지명자 "김정은, 아버지보다 더 공격적"(연합뉴스) |
| | | 美 차관보 "北 5차 핵실험 강행시 한미일 3국 군사 대응조치"(연합뉴스) |
| | | 美블링컨 北 도발 중단해야·도발대응 추가조치 논의중(연합뉴스) |
| | | 中, 北 5차 핵실험가능성에 "정세 악화행위 말라" 거듭 촉구(연합뉴스) |
| 북한, 앙골라에 의사 30명 추가 파견(미국소리) | | |
| 北, 당초 4·5차 핵실험 연달아 계획한 듯(자유아시아방송) | | |
| 4.21 | 이스라엘 전문가, 北 로켓 분출시험 추진체에 이란기술 사용(연합뉴스) | |
| | 주한美사령관 지명자가 본 북한·재래전력 낙후·사이버 최고(연합뉴스) | |
| | 北 미사일 무수단 발사 실패 당시 인명·발사차량도 피해(연합뉴스) | |
| | 美國무부 "케리, 리수용 안 만난다·北 비핵화이지 보여야"(연합뉴스) | |
| | 中전문가,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해야(연합뉴스) | |
| | 北 외무성, 日서 反北 유언비어 나돌아·노골적 적대행위(연합뉴스) | |
| | 재일조선학교, 日정부 보조금 철폐는 차별·항의집회(연합뉴스) | |
| | 러시아, 불탄 '김일성의 집' 복원 마치고 공개(연합뉴스)(연합뉴스) | |
| | 주한 이란대사, 북한과 군사 협력 전혀 없다(연합뉴스) | |
| 4.22 | 이스라엘 전문가 "북, 노동미사일 탑재용 핵탄두 만들었을 것"(연합뉴스) | |
| | 38노스, 많지 않지만 차량 장비 움직임·北 기습 핵실험 가능성(연합뉴스) | |
| | 백악관,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 여전·북한이 거꾸로 행동(연합뉴스) | |
| | 로빈슨 美북부사령관 지명자, 이란보다 북한이 더 중요한 위협(연합뉴스) | |
| | | 러셀 "中, 김정은의 무모하고 호전적 행동 용인 함들어"(연합뉴스) |

| | |
|------|--|
| | 美하원, 대북 정보유입 공세에 팔걸어·라디오에 USB·휴대폰도(연합뉴스) |
| | 北외무상,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다·핵실험 정당화(연합뉴스) |
| | 미국 국무부, 북한 SL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연합뉴스) |
| | 러시아도 北 SLBM 발사 확인·전술 미사일(연합뉴스) |
| 4.23 | 북한 고려항공, 방콕노선 운항 다음주 종료(연합뉴스) |
| | 北풍계리 핵실험장 장비 인력 철수안해·핵실험 준비 박차(연합뉴스) |
| | 北 동해서 '잠수함 미사일 1발 기습발사'·비행거리 30km(연합뉴스)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4. 19.

■ 北김정은, 제7차 당대회 평안남도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평안남도 대표회에서 다음 달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 대표자로 추대됨.
-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8일 당 평안남도 대표회가 평성시에서 열린 가운데 “김정은 동지를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9일 보도함.
- 박태성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는 추대사에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추대하는 것은 도 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고귀한 충정의 발현으로 된다”고 말함.

2016. 4. 20.

■ 北김정은, 제7차 당대회 자강도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자강도 대표회에서 다음 달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 대표자로 추대됨.
- 조선중앙방송은 20일 “김정은 동지를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함.
-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는 추대사에서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높이 올려세운 것은 민족사적 대공적”이라며 “원수님은 청년강국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고 강성국가 건설에서 대기적, 대비약을 이루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함.

■ 北 김정은, 제7차 당 대회 평양시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노동당 평양시대표회에서 다음 달 초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의 대표자로 추대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평양시대표회가 19일과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면서 “대표회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함.
-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는 추대사에서 “김정은 동지를 대표로 추대하는

것은 시 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고결한 충정의 발현”이라고 말함.

2016. 4. 21.

■ **北 김정은, 쿠바 카스트로 제1비서 재선 축하(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쿠바 공산당 제7차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재선된 라울 카스트로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당신(라울 카스트로)이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다시 선거된 것은 당신에 대한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의 표시”라고 밝힘.
- 그러면서 “이 기회에 반제 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맺어진 두 당, 두 나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덧붙임.

2016. 4. 22.

■ **北김정은, 당 대회 함경남도·황해북도·나선시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초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의 함경남도, 황해북도, 나선시 대표로 추대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김정은 동지를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함.

2016. 4. 23.

■ **北김정은, 백두산3호발전소 준공식 참석...제재 세력 후려쳤다(연합뉴스)**

- 북한이 70일 전투의 대표적 사업으로 추진했던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6개월 만에 완공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제1위원장의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명령을 녀달이나 앞당겨 끝내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영웅청년 신화가 창조되었다”고 밝힘.
- 준공식에는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근로단체부장·조용원 당 부부장 등이 참석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4. 20.

■ 북, 독일측에 리시홍 대사 교체 통보(미국의소리)

- 주독일 북한대사가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전해짐.
-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최근 북한이 독일 측에 리시홍 주독일 대사 교체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리시홍 대사가 조만간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정확한 교체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리시홍 대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여러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음.

■ 北, 남수단 신임 대사에 김철호 임명(연합뉴스)

- 북한이 아프리카 남수단 대사에 김철호를 임명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이날 “김철호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3일 살바 키이르 마야르디트 남부수단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 2011년 당시 분리 독립한 신생국이었던 남수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바 있음.

2016. 4. 23.

■ 반기문, 파리기후협정 서명식서 리수용 北외무상과 조우(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2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대면함. 반 총장이 유엔총회장 단상에서 서서 협정문 서명을 마친 각국 정부 대표들과 차례로 악수하는 형태의 지극히 의례적인 조우였음.
- 그러나 반 총장과 리 외무상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았고, 두 손을 맞잡은 채 10여 초 대화를 나눠 반갑게 만나고 있다는 인상을 남김.
- 반 총장과 리 외무상의 별도 면담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함.

다. 공식행사

2016. 4. 22.

■ 北 당대회 언제 열리나·날짜 미공개에 관측만 무성(연합뉴스)

-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다음 달 초에 연다고 발표한 지 반년 가까이 되도록 구체적인 개최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0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주체105(2016)년 5월 초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함. 하지만 북한은 그로부터 거의 반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최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평양시 등 각지의 대표로 잇달아 추대하는 등 당대회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때 당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 확실함.
- 우리 정보 당국은 지난 2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다음 달 7일 열릴 것 같다고 보고한 바 있음. 그렇지만 5월 7일이 토요일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반론과 함께 최근 들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5월 2일, 5월 5일, 5월 7일, 5월10일 개막설 등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음.
-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며 “다음주 소집공고가 나오면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2016. 4. 23.

■ 北, 日언론에 당대회 평양 취재 허용(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다음 달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일본 언론 매체에 평양서 당대회 취재를 해도 좋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 次郎) 오사카(大阪) 사무소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일본 매체에 ‘당대회 취재를 허락하겠으니 의향이 있으면 평양에 와서 취재해도 좋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함. 북한 당국은 그러나 정확한 당대회 날짜는 통보하지 않음.
- 한편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외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했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4. 19.

■ 36년만의 北 당대회 나홀로 행사될 듯…초청외교 동향 없어(연합뉴스)

- 다음 달 7일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는 외국 주요 인사가 참석하지 않는 나 홀로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19일 북한의 당 대회 준비 동향과 관련해 “지난 2월 11~13일 김영철 등이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 우방국을 방문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당 대회 초청 외교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다보스 포럼 참석이 무산되는 등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당국자는 행사 규모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대외무역과 외화벌이 여건이 악화하면서 외화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통치자금 및 당대회 자금 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함.

2016. 4. 20.

■ 北, 5월 당대회 앞두고 평양 출입통제(연합뉴스)

-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될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외부인들의 평양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태양절(김일성 생일) 기념축제가 끝나자마자 다가오는 (5월 초) 대회를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 시작됐다”면서 “(당국은) 타지방 주민들의 평양시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이미 와 있는 출장원과 친척 방문자들은 즉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고 밝힘.
- 데일리NK는 북한이 과거 큰 행사를 앞두고 평양을 봉쇄하거나 경비를 강화해 왔지만 이번처럼 보름가량 남은 상황에서 출입 통제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면 당 대회를 통해 체제 공고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4. 17.

■ 北, 당대회 앞두고 네쌍둥이 띄우기…조국에 기쁨(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해 태어난 네쌍둥이가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 다음 달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6일자 ‘비약하는 조국에 기쁨을 더해준 네쌍둥이 소식’ 기사에서 5개월여 동안 평양산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네쌍둥이가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4월15일)에 건강히 퇴원해 비행기를 타고 귀가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당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비약하는 내 조국에 기쁨을 더해주며 태어난 네쌍둥이는 원수님의 영도 밑에 더욱 번영할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뜻깊은 경사”라며 의미를 부여함.

2016. 4. 21.

■ **北, 7차 당대회 앞두고 연일 ‘김정은 유일영도’ 앞세워(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5차 당대회를 비롯한 이전 당대회를 다시 거론하며 ‘김정은 유일 영도’를 강조하고 나섬.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공업화 승리의 선포, 3대 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한 당 제5차 당대회’라는 글에서 1970년 11월 2~13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당대회를 소개함.
- 신문은 “수령님(김 주석)이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 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다”고 설명함.
- 신문은 또 4차 당대회의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완수와 5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6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언급하며 그 결과 “공업화가 완성”되고 “오곡백과 무르익은 가을처럼 풍요했다”고 주장함.
- 이처럼 북한 관영 매체가 잇달아 이전 당대회를 언급하는 것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유일 영도를 강조하는 한편, 당대회 전까지 경제적 성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는 속도전인 ‘7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2. 경제

가. 정책 동향

2016. 4. 19.

■ **北, 외국인 방문객 대상 외화벌이 총력전...대북제재 여파(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외화부족이 심화함에 따라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을 상대로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19일 전해짐.
-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지난 10~11일 평양에서 열린 국제마라톤대회와 김일

- 성 생일(4월 15일)인 태양절을 맞아 열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관광코스를 외화상점이나 백화점 위주로 짜 북한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기존에는 외국인 일행이 평양에 체류하면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묘향산 등 명승지 위주로 관광코스를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상품 홍보에 열중했다”고 말함.
 -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과거에도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인 방문객의 백화점과 외화상점 방문을 유도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화난이 가중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 대회 준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함.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6. 4. 22.

■ 北노동자들, 이슬람국 쿠웨이트서 밀주 제조·거래(자유아시아방송)

- 술과 관련한 엄격한 제도를 갖춘 쿠웨이트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밀주를 제조해 유통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쿠웨이트의 한 소식통은 RFA에 “회사가 마련해준 아파트에 사는 일부 북한 노동자들은 주방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싸대기(Sadeeqi)’라 불리는 밀주를 만들고 있다”고 밝힘.
- 이슬람교 국가인 쿠웨이트에서는 술을 만들고 팔고 마시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어서 싸대기는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짐. 소식통은 “싸대기는 보통 양주를 만들어 파는 인도 노동자들이 유통하는데, 유통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된 인도 밀거래상들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싸대기를 만든 북한 노동자들을 쿠웨이트 수사당국에 밀고하기도 한다”고 전함. 2014년 10월에 만 밀주를 제조하다 적발된 북한 노동자가 22명에 달함. 이런 가운데도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현지 북한 회사의 묵인 아래 밀주 제조와 유통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임.
- 파견 기간인 3년간 근무하면서 밀주 판매를 통해 북한 건설사 사장의 경우 100만 달러, 당비서는 50만 달러, 보위부 요원(우리의 국가정보원 직원)은 30만 달러를 모으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회사 밖 개별 노동활동을

금지하는 쿠웨이트 당국의 규정을 위반한 채 암암리에 외부에서 노동활동을 하는
가 하면 건설현장에 비치된 자재를 몰래 가져다 파는 사례도 있다고 RFA는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4. 18.

■ 스리랑카, 북한인 운반 거액 달러 압수...4차 핵실험 후 처음(연합뉴스)

-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공항을 경유하던 북한인들이 몰래 운반하던 2억원 가까운 달러를 모두 압수함.
- 익명을 요구한 스리랑카 관세청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4일 수도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북한인 2명이 운반하던 미화 16만8천달러(1억9천300만원)를 관세청이 모두 압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힘.
- 관세청은 또 이 돈을 직접 자신의 가방에 넣어 운반하던 북한인 1명에게 세관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80만원)를 납부하라고 명령함.
- 한 북한 전문가는 외국의 북한 근로자들이 은행을 통한 달러 송금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이번처럼 인편을 통한 외화 직접운반이 지속될 것이라며 스리랑카의 조치가 다른 나라에도 북한인의 현금 운송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분석함. 다만 북한의 외화 운송 방법도 더욱 은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함.

2016. 4. 19.

■ 38노스, 북-나미비아 교역에 제재대상 연루...대표적 허점(연합뉴스)

- 북한이 그동안의 각종 도발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겹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으며, 북한과 아프리카 나미비아와의 교역에 제재 대상 기업이 참여하는 점이 대표적이라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전함.
-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19일(이하 현지시간)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이 나미비아에서 새로운 군사기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도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을 통해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함.
- 버거 연구원은 KOMID가 북한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 북한 관계자가 외국에서 군사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일 역시 제재 대상이지만 제대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다고 지적함.

2016. 4. 20.

■ **北, 中에 지하자원 ‘헐값수출’…5년간 51억불 손실(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에 각종 지하자원을 국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출하면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기회손실이 51억 달러(한화 5조7천700억원)에 달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옴.
-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공학박사)이 20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지하자원 수출가격 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1~15년 무연탄을 비롯한 6종의 주요 광물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총 75억2천800만 달러(한화 8조 5,254억원 상당)를 벌어들임.
-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당시의 국제 거래가격으로 수출했다면 총 126억3천만 달러(한화 14조3,034억원 상당)를 얻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즉 북한이 지난 5년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수출해 모두 51억200만 달러를 손해봤다는 것임.
- 최 소장은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의 소중한 국부이므로 북한이 저가 수출을 계속하면 지하자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통일한국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당장은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향후 북한의 지하자원을 보호하고 민족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함.

2016. 4. 22.

■ **북중접경 단동 대북제재 50일…상인들 “변화 피부로 느껴져”(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시행된 지 50일째를 지나면서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역경제에까지 적잖은 파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참고소식망은 22일 단둥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돈줄 죄기에 목표를 둔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가 두달 가까이 진행되자 북중교역의 거점인 단둥에서부터 종전과 달라진 북한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함.
- 특히 북한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반대로 단둥으로 들어오는 북한 차량이 거의 끊기는 등 대북제재에 따른 영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참고소식망은 전함.
- 참고소식망은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민생 목적에 대해선 예외를 남겨줬으나 앞으로 조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4. 19.

■ 北, 종업원 집단탈북 이후 중국내 유학생 소환(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중국 저장(浙江)성 Ningbo(寧波)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 이후 중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중국 단둥(丹東) Y대학의 한 교직원은 RFA에 “우리 대학에 유학 중인 20여 명의 북한 학생들 대부분이 최근 자취를 감추고 등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은 모두 북한으로 소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그러면서 “유학생 대부분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무역주재원들의 자녀로 알고 있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은 시점은 지난 4월 13일~14일께로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기억된다”고 설명함.
-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 여파로 학생들의 유학 허가를 당분간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조치는 해외에서 탈북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항상 되풀이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함.

2016. 4. 21.

■ 北 황해남도 신천초대소에 6번째 김정은 전용활주로(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6번째 전용 활주로를 황해남도 신천초대소에 건설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북한 위성사진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RFA에 출연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 이후 별장이 있고, 자신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중심으로 전용 활주로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활주로는 6번째로 이미 평양과 원산, 묘향산 등에 전용 활주로는 건설된 바 있다”고 밝힘.
- “(김정은 전용 활주로는) 지난해 1월과 10월 사이에 완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김정은의 스타일을 반영해 앞으로 북한 곳곳에서 더 많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임.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6. 4. 17.

■ 北, 당대회 앞두고 피어싱·말총머리 단속(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젊은이들의 피어싱과 말총머리(포니테일)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보도함.
- 아시아프레스는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 노동당 산하 사회단체인 청년동맹이 북한 내 복장과 두발 등 비사회주의 풍속에 대한 적발에 나섰다고 전함. 특히 미국이나 한국 등 여성이 흔히 하는 말총머리를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문화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으며, 귀걸이는 괜찮지만 피어싱 역시 단속 대상이 됨.
- 또 함경북도는 지난달 23일 비사회주의 풍속을 단속하는 ‘청년동맹 비사그루빠(비사회주의 단속그룹)’를 새로 조직했으며,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는 단속에 걸린 청소년들을 강원도에 있는 6·18돌격대로 보내 강제노동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짐.

2016. 4. 20.

■ 北, 서구풍 배경 ...자본주의 성향 강한 사람 색출(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사상 무장을 위해 서구풍 배경 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일 중국 참고소식망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주민을 대상으로 청마지를 비롯한 서구식 복장을 입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북중 접경의 함경북도와 량강도 주민을 더 단속하고 있음.
- 당국은 또 여성들이 귀걸이를 달려고 과도하게 귀를 뚫는 행위와 최신 헤어 스타일을 추구하는 등 서구식 생활습관을 배격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짐.
- 이번 조치가 함북·량강도 주민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이들이 평소 중국 문물 접촉이 잦아 다른 지방과 비교할 때 외부 정보를 쉽게 접할뿐더러 외국의 유행 스타일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알려짐.

2016. 4. 22.

■ **北공안, 건설자금 조달 위해 과도한 교통단속(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공안당국이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과도한 교통단속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함경북도 인민보안국에서 맡은 5월 10일 공장(나남 탄광기계연합) 재건공사는 아직 미진한 상태”라며 “인민보안국이 건설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갑자기 길거리 교통단속과 각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다른 소식통은 “청진 시내 중심에만 교통단속 초소가 수십 개나 된다”면서 “자금 조달 이유가 작년 5월 김정은이 이 공장(5월 10일 공장)을 시찰하면서 공장을 새로 지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라. 사회 동향

2016. 4. 21.

■ **北 당대회 앞두고 군부대서 권총실탄 30발 분실(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황해북도 주둔 제2군단 소속 군부대에서 북한제 백두산 권총(DA/SA)의 실탄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대북매체인 자유북한방송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 21일 보도함.
- 황해북도 소식통은 “지난 18일 (인민군) 총정치국의 총탄 검열과정에서 2군단 포병부대 참모부 탄약보관함에 있던 백두산 권총 총알(7.62mm) 30발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대는 물론 그 주변 지역까지 (군인들을 동원해) 총탄을 찾기 위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의 신변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전선 군단에서부터 총탄 보관에 대한 검열이 이뤄졌다고 밝힌 뒤 “총탄 분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총정치국의 검열을 받기 전인 지난 14일 군단 자체의 총탄 실사가 진행되었을 당시까지는 별다른 정황이 없었다”며 총탄 분실이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4. 17.

■ 북한 외교관리, 美CNN에 “트럼프 발언 완전히 터무니없어”(연합뉴스)

- 북한의 외교관리가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 발언에 대해 “완전히 터무니없고 불합리하다”고 말함.
- 전직 대사 출신으로 북한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리종렬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우리를 향해 핵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고 주장함.
-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북한의 외교관리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공개로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016. 4. 19.

■ 美국무부 장관, 北 추가도발시 더 강력한 대응(연합뉴스)

-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추가 도발시 “더욱 강력한 대응”을 경고함.
- 일본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5차 핵 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언급,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블링컨 장관은 이어 “북한은 (재도발을 할 경우) 이미 빠져 있는 곤경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의 “중대한 우려”라고 지적한 뒤 그 위협에 대응해 한국·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함.

■ 미 국무부, 北핵실험 준비상황 심각히 간주…도발위협 중단하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고 밝힘.
-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상황을 최대한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 커비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과거 행동으로 볼 때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간주해야 한다”며 “북한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중단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 **주한美사령관 지명자, “사드배치, 北미사일 위협 다층적 방어”(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같은 상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한·미동맹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하는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군사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 브룩스 지명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상대로 소통을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힘.

2016. 4. 20.

■ **주한美사령관 지명자 “김정은, 아버지보다 더 공격적”(연합뉴스)**

- 주한미군 사령관에 지명된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장이 19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아버지(김정일)보다 더 많이 위협을 감수하고 오만하며 충동적”이라고 평가함.
-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존 매케인)가 주최하는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제적 우려를 보란 듯이 무시하면서 부친보다 더 공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브룩스 지명자는 다만 현 시점에서 김정은이 완벽히 정권을 장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은 군과 정부, 당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불안정성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함.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지하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실제로 북한의 행동에 실망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존속을 위협할 수준의 압력을 가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함.

■ **美 차관보 “北 5차 핵실험 강행시 한미일 3국 군사 대응조치”(연합뉴스)**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9일(현지시간) 밝힘.
-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핵 실험 강행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본국으로의 달러 송금을 옥죄는 등 돈줄을 차단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임.
- 러셀 차관보는 추가 대북 제재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손잡고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함.

■ **美블링컨, 北 도발 중단해야··도발대응 추가조치 논의중(연합뉴스)**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0일 5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도발에 대응한 추가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힘.
- 방한 중인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연합뉴스TV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는 지금 북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아주 강력하고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함.
-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 추가적인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트리거’ 조항을 거론하며 “그런 조치가 무엇이 될지 추측은 삼가겠지만, 현재 파트너 국가들과 추가적 조치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함.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계속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방어적 조치를 들 수 있다”고 강조함.

2016. 4. 21.

■ **美국무부 “케리, 리수용 안 만난다··北 비핵화의지 보여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엔 회의 참석차 뉴욕에 도착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뉴욕 방문 기간에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커비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리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면서 “두 사람 간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함.
- 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며 양국 간 대화와 만남을 위해서는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임박설과 관련,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이 단순히 ‘뭘 하겠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도 우리는 액면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는 우리, 그리고 동맹인 한국과 역내 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우려함.

2016. 4. 22.

■ **백악관,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 여전··북한이 거꾸로 행동(연합뉴스)**

-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함.
-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과 함께 정례 브리핑을 갖는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왜 이란과 쿠바와는 대화하면서 북한을 제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솔직히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조금의 진정성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함.

- 로즈 부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과거의 약속을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가는데 진정성이 있다면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함.

■ 로빈슨 美북부사령관 지명자, 이란보다 북한이 더 중요한 위협(연합뉴스)

- 로리 로빈슨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우주항공사령관 지명자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은 단기적으로 이란보다 더 중요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위협이지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평가함.
- 미국 역사상 첫 여성 4성장군인 로빈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평가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강조함.
- 로빈슨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본토 미사일 방어(MD)와 관련해 “우리의 방어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미사일 식별능력을 강화하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밝힘.

■ 러셀, “中, 김정은의 무모하고 호전적 행동 용인 힘들어”(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무모하고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호전적이며 안정을 해치는 행동은 중국으로서는 용인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함.
-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 ‘미국의 태평양 미래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을 묻자 “중국과의 공조가 주목 할 만한 정도로 개선됐다”면서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김정은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주장함.
- 러셀 차관보는 “우리는 불가침(non-aggression), 다시 말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의 뜻을 밝힐 의향이 확고하며,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원조를 제공할 의향도 확고하다”며 “또 이와 별도 채널을 통해 휴전협정의 뒤를 이을 무엇, 다른 말로 '평화 체제'(peace arrangement)를 추진할 의향도 여전히 있다”고 덧붙임.

■ **美하원, 대북 정보유입 공세에 팔걸어…라디오에 USB·휴대폰도(연합뉴스)**

-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북한 내부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음.
- 특히 시대적 변화와 기술적 진보를 반영해 대북 정보 유입수단을 기존 라디오에서 USB(이동식 컴퓨터 파일 저장장치)와 소형 메모리카드, 휴대폰 등으로 다양화하고 한국어로 된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됨.
-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지난 2월9일자로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고 정보 콘텐츠를 보강하는 내용의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H.R. 4501)을 발의함.
- 이 법안은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이어 대북 제재가 한층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외교소식통들은 주목하고 있음.

2016. 4. 23.

■ **미국 국무부, 북한 SL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행위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함.
- 국무부는 이날 존 커비 대변인 명의로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우리는 관련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활동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비롯해 한반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활용해 실험을 실시했는지와 실제로 발사 실험이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밝힘.

나. 북·중 관계

2016. 4. 18.

■ **北, 내달 초 7차 당대회에 중국 초청 움직임 없어(연합뉴스)**

- 북한은 다음 달 초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제7차 노동당 대회에 아직 중국을 초청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18일 전해짐.
- 반면 러시아, 라오스, 쿠바 등 일부 초청 대상일 가능성 있는 국가와는 물밑으로 초청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짐.
-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18일 “일부 국가의 경우 북한이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청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중국과는 그런 이야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중인민해방군, 北中접경 관할 북부전구에 4개 집단군 배치(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 체제 개편에 따라 북중접경을 관할하게 된 북부전구(北部戰區)에 4개 집단군을 배치하기로 확정함.
- 18일 중국 봉황망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육군이 과거 7개 군구(軍區)에서 동·서·남·북·중부 지역을 관장하는 5개 전구(戰區)로 개편된 가운데 옛 선양(瀋陽)군구의 제16, 39, 40 집단군과 옛 지난(濟南)군구의 제26 집단군이 북부전구 육군으로 배속됨.
-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성 등 기존 선양군구에 내이멍구(內蒙古)자치구를 더해 확대 개편한 북부전구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북한의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유사시 이들 4개 집단군이 대비업무를 맡게 됨.

2016. 4. 19.

■ **中, 北 5차핵실험 가능성에 “정세 악화행위 말라”(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는 것과 관련, 북한을 겨냥해 추가적인 정세 악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 정세 아래에서 유관 각국(당사국)은 반드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모순을 격화시키거나 정세를 추가로 악화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함.
- 화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2016. 4. 20.

■ **中, 北 5차 핵실험가능성에 “정세 악화행위 말라” 거듭 촉구(연합뉴스)**

-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겨냥해 추가적인 정세 악화행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 정세 아래에서 유관 각국(당사국)은 반드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모순을 격화시키거나 정세를 추가로 악화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5차 핵실험 강행 시 미국이 취할 더욱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느냐”, “중국도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는 등의 물음에는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할 생각이 없다”며 답하지 않음.

2016. 4. 21.

■ **中전문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추진해야(연합뉴스)**

-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쑤거(蘇格)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1일 보도함.
- 쑤 원장은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견해를 밝힘.
-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지역적인 것과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각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병행 추진을 위한 로드맵(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함.

다. 북·일 관계

2016. 4. 19.

■ **北, 日서 구마모토지진 관련해 反北 조장 유언비어 난무(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최근 발생한 구마모토(熊本) 지진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반(反) 북한 감정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들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안되어 우익반동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에는 구마모토의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찼다는 해괴한 글이 올랐는가하면, 구마모토에서는 조선인의 폭동에 조심하라는 등 반조선인 감정을 부추기는 유언비어들이 어지럽게 나돌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인터넷상에 극악한 반조선인 망언을 게재한 자들은 누구이며, 그자들이 노린 음흉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며 “지진피해자들의 통곡 소리가 울리고 여진의 공포가 무섭게 떠돌고 있는 때에 극악한 반공화국, 반조선인 감정을 부추기는 비열하고 배타적인 난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함.

■ **日방위상, 北추가도발 가능성…경계감시 만전(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9일 북한이 5차핵실험을 하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것과 관련해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계감시에

만전의 태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함.

-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추가 도발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 나타카니 방위상은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6. 4. 21.

■ **北 외무성, 日서 反北 유언비어 나돌아…노골적 적대행위(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최근 발생한 구마모토(熊本) 지진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 반(反) 북한 감정을 조장하는 극우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후 조선사람에 대한 일본 우익 반동세력들의 민족배타주의 책동이 머리를 쳐들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에 민족적 적대감과 혐오감을 고취하는 유언비어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일본 당국은 유치하고 너절한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재일 조선인들의 존엄과 인권 침해를 막은 조장 시키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며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재일조선학교, 日정부 보조금 철폐는 차별…항의집회(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섬.
-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수도권의 조선학교 관계자 약 1천 명은 20일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보조금 존속을 요구함.
- 신길웅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핵, 미사일, 납치 등 외교 및 안보 문제와 조선학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통지를 신속히 철회하고 조선 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폐지하라”고 말함.

라. 북·러 관계

2016. 4. 18.

■ **러, 북한 핵·미사일 실험 실질적 무력분쟁 위험 불리(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섬.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준비위원회 집행서기인

- 라신 제르보와 함께 18일(현지시간) 자국 일간 ‘코메르산트’와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에 동시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실험이 한반도의 대규모 무력 분쟁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함.
- 라브코프 차관 등은 이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체결 20주년을 맞아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반도에 아주 우려스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역내 긴장을 점진적으로 고조시키고 실질적 대규모 무력분쟁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함.

■ 교도 “北, 러시아에 ‘당대회전 핵실험’ 가능성 시사”(연합뉴스)

- 북한이 내달 36년 만에 개최하는 노동당 대회 이전에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임을 사실상 러시아에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북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북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외교 당국자들과 협의할 때 한미합동훈련을 비난하면서 “우리의 전투 능력을 경시하면 놀라게 될 것”이라며 “당대회 전에 높은 전투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는 전함.
- 교도는 이를 두고 북한이 당대회에 앞서 제5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것임을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해석함.

2016. 4. 21.

■ 러시아, 불탄 ‘김일성의 집’ 복원 마치고 공개(연합뉴스)

- 러시아가 지난해 화재로 사라진 ‘김일성의 집’을 복원함.
-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철도공사 극동지부는 21일(현지시간) 김일성의 집 재건 공사를 마쳤다고 밝힘.
- 이날 열린 공개 행사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총영사가 참석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함.

2016. 4. 23.

■ 러시아도 北 SLBM 발사 확인…전술 미사일(연합뉴스)

- 러시아도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사실을 확인함.
-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의 미사일공격경고시스템이 북한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했다며 하지만 이를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판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함.

- 소식통은 “미사일공격경고시스템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지만 이것이 전술 미사일 발사였고 미사일 비행 궤적도 러시아 쪽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4. 18.

■ 노벨상 수상자 3명, 29일 방북해 김일성종합대학 강연(연합뉴스)

- 노벨상 수상자 3명이 오는 29일 방북해 김일성종합대학 등에서 강연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함.
- 우베 모라베츠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 “노벨상 수상자 3명이 다음 달 6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함.
-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벨상 수상자들 3명이 동시에 북한을 방문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으나 모라베츠 이사장은 이번 방북 일정이 정치나 외교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힘. “경제 정책과 의학 개발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정치적 성명 등을 발표하는 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번 행사를) 조용한 외교의 수단으로 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함.

2016. 4. 19.

■ 北 김영남, 지진피해 에콰도르 대통령에 위문 전문(연합뉴스)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귀국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으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귀국 정부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낸다”고 밝힘. 이어 “귀국 정부가 자연재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덧붙임.

2016. 4. 20.

■ 북한, 앙골라에 의사 30명 추가 파견(미국의소리)

- 북한이 아프리카 앙골라에 의사 30명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김형일 앙골라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18일 앙골라 메농그에서 취재진을 만나 “북

- 한과 앙골라 간 협력사업의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북한 의사 약 30명을 앙골라에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김 대사는 “북한 의사들이 현지에서 새로 들어선 병원에서도 일할 뿐 아니라 현지 보건 요원을 훈련할 것”이라며 “의료 외에 에너지와 식수, 통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2016. 4. 21.

■ 주한 이란대사, 북한과 군사 협력 전혀 없다(연합뉴스)

- 주한 이란 대사는 21일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과 군사적, 미사일 부문의 협력은 전혀 없다”고 밝힘.
- 하산 타헤리안 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란이) 북한과 우호적 관계인 것은 북한이 과거 이라크와 전쟁 때 이란을 도와준 소수 국가였기 때문이며 고립된 북한과의 교역이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고 말함.
- 타헤리안 대사는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매우 진전됐으며 다른 국가와 관련이 없다”면서 한국어로 “(북한과 미사일 기술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함.
- 아울러 그는 이란이 북한과 미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임.

2016. 4. 23.

■ 북한 고려항공, 방콕노선 운항 다음주 종료(연합뉴스)

- 북한 고려항공이 중국 선양을 경유하는 평양-방콕 노선의 운항을 이달 중 중단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함. 이번 조치는 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승인하고 북한 항공기 입항 불허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임.
- 공항 관계자는 “고려항공의 비행허가는 오는 8월 29일 만료된다”고 설명함.
- 그러나 현지 소식통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태국 정부가 대북제재 차원에서 고려항공 입항 금지 여부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입항 금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4. 17.

■ 北풍계리 핵실험장 차량 인력 2~3배...5차핵실험 가능성 주시(연합뉴스)

-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 제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과 인력의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와 군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식별됨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17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 차량과 인력, 장비의 활동이 수치로 따지자면 지난 달에 비해 2~3배가량 늘었다”면서 “관련 당국에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유력한 징후라고 판단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2016. 4. 19.

■ 38노스 “북한 핵실험, 느린 준비과정 거친 전격 강행 형태일듯”(연합뉴스)

-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이 느린 준비과정을 거친 전격 강행이라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전망함.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지난 14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입구 부근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차량용 트레일러 또는 소형 차량으로 추정되는 소형 물체”가 포착됐으며 이같이 밝힘.
- 버뮤데스는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보이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위성사진을 통해 중요한 (핵실험) 징후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북한이 느린 준비과정과 전격 강행이라는 형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풀이함.

2016. 4. 20.

■ 北, 당초 4·5차 핵실험 연달아 계획한 듯(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핵개발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4차와 5차 핵실험을 연달아 감행하는 것을 미리 계획했을 수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스웨덴 연구기관의 내부보고서를 인용해 20일 보도함.
-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의 한국 출신 이상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

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 기술이 더욱 발전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약 3~4개월 안에 (5차 핵실험을 통해) 기술을 최종 점검기로 하는 등 미리 4, 5차 핵실험을 연달아 하려고 계획했을 것”이라고 밝힘.

- 이 연구원은 북한이 1~4차 핵실험은 대략 3년 주기로 해왔지만 5차 핵실험은 이례적으로 빨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1차 목표가 될 것이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목표로 두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이스라엘 전문가, 北 로켓 분출시험 추진체에 이란기술 사용(연합뉴스)

- 이스라엘의 미사일 전문가가 북한이 최근 공개한 고체연료 로켓엔진 분출시험에 사용된 추진체에 이란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이스라엘 피서항공우주전략연구소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지난 19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이란과 공유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 북한의 고체연료 로켓엔진 분출시험에서 공개된 추진체는 이란이 개발한 것과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말함.
-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미사일 관련 시찰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화성 13호’의 개량형 버전(KN-08)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의 경우 기존에 비해 탄두 부분도 크기가 커져 핵이나 수소폭탄도 실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함.

■ 주한美사령관 지명자가 본 북한·재래전력 낙후·사이버 최고(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설명한 북한군의 전력은 분야에 따라 첨단과 골동품 수준을 오감.
-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성장 중인 영역”이라면서 “세계 최고라고 묘사하지는 않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잘 조직화한 전력 중 하나”라고 말함. 브룩스 지명자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받는 훈련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면서 심각하게 낡은 무장과 경제 부문의 취약성은 “조선인민군이 대규모 공격을 버텨낼 병참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의 무기 체계 다수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것”이라면서 “북한의 전투체계 주류는 골동품화했다”고 덧붙임.

■ 北 미사일 무수단 발사 실패 당시 인명·발사차량도 피해(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이동식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했으나

- 폭발했을 당시 현장에 있던 미사일 기술인력이 숨지거나 다쳤고 발사 차량도 파손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보수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이 20일 보도함.
- 이 매체는 미군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동해안 부근에 배치했던 2발의 무수단 미사일 중 첫발을 발사했지만 5~6초 후에 폭발했다며 이같이 전함.
 - 한 외교 소식통은 무수단 미사일의 연료공급계통에 문제가 있었으리라 추정했지만, 이를 검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이 매체는 밝힘.

2016. 4. 21.

■ 이스라엘 전문가 “북, 노동미사일 탑재용 핵탄두 만들었을 것”(연합뉴스)

- 북한에서 핵무기의 크기를 사거리 1천km급인 노동 미사일 탄두에 맞춰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미사일 전문가가 추정함.
-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20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상원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자체 설계한 탄도미사일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노동 미사일을 꼽으며 이같이 밝힘.
- 핵무기 개발이 진전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 있다”고 평가한 인바르 센터장은 최근 북한에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핵무기 모형을 둘러보는 장면을 공개한 데 대해 “서방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의심하는 데 대한 직접적 반응”이라고 평가함.
- 인바르 센터장은 국제사회의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가 장거리미사일 개발 계획을 저지할 가능성에 대해 “제재만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제재 이외의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38노스, 많지 않지만 차량 장비 움직임…北 기습 핵실험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듯 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달 말 또는 다음달초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서 많지는 않지만(limited)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발표함.
- 38노스는 “이 같은 활동 자체로는 핵실험 준비가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핵실험이 곧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통해 사전에 준비 중인 징후를 감추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통보 없이 핵실험을 실행에 옮길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함.

2016. 4. 22.

■ **北외무상,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다…핵실험 정당화(연합뉴스)**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북한에 가해지는 유엔 차원의 제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함. 또 한반도에서 핵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북한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 리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 대표 연설을 통해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판하는 한편 이런 제재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북한은 12년 의무교육, 무상치료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지속가능 개발은 외세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리 외무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변함.
- “지금도 30만 명의 방대한 무력과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쟁 연습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도 해 보고, 국제법에 의한 노력도 해 봤지만 모두 수포가 됐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임.

2016. 4. 23.

■ **北풍계리 핵실험장 장비·인력 철수안해…핵실험 준비 박차(연합뉴스)**

- 정부와 군 당국은 23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인력이 아직 철수하지 않는 등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이 지역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
- 정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하는 장비와 인력이 빠져나와야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언제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는 갖춘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함.
- 다른 소식통은 “핵실험이 유력한 시기로는 북한군 창건일(25일) 전후 또는 내달 초로 예정된 노동당 7차 대회 직전 등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행사가 있는 이번 주부터 사실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고 보고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 **北, 동해서 ‘잠수함 미사일’ 1발 기습발사…비행거리 30km(연합뉴스)**

- 북한이 23일 오후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KN-11·북한명 '북극성-1') 1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으나 30km를 비행한데 그친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작년 12월 25일 SLBM의 첫 초기 비행시험에 실패한 뒤 이번에 약 4개월 만에 비행시험을 재시도했으나 SLBM이 갖춰야 할 최소 비행 거리에 크게 못 미쳐 이번 SLBM 초기 비행시험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임.
-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후 6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동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면서 “오늘 발사한 SLBM의 비행 거리는 약 30km였다”고 밝힘.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한국 | 미국 |
|-------|----------------------------------|---|---|
| 한미 관계 | 4.18 | 김형진 외교차관보 "한미동맹, 역경속에서도 공정한 책임분담"(연합뉴스) | |
| | 4.19 | 한미동맹 세미나, 北 5차 핵실험은 시간문제·中 사전경고해야(연합뉴스) | |
| | 4.20 | | 주한美시령관 지명자, 핵우산 없으면 韓 핵무장 검토해야할 것(연합뉴스) |
| | | |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5차 핵실험 등 북핵 대응방안 조율(연합뉴스) |
| | 4.22 | | 갈투치 北 핵능력 진전 때 한·일 핵무장 논의 정당화(연합뉴스) |
| | 4.23 | 한미일 北 추가 핵실험 시 원유수출 전면차단 추진(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한국 | 중국 |
| 한중 관계 | 4.21 | 한중, 내일 6지수석 회동·정부, 北추가도발 억제 총력(연합뉴스) | |
| | 4.23 | 한중 6지수석, 북한 추가 핵실험 때 추가적인 중대조치(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한국 | 일본 |
| 한일 관계 | 4.20 | | 유엔특별보고관, 위안부 문제 교과서 삭제·정치적 의도반영(연합뉴스) |
| | | | 한일 국장급 협의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논의(연합뉴스) |
| | | | 日외판섭 특별법 제정·영해·EEZ 일방적 주장 강화 의도(연합뉴스) |
| | 4.21 | | '한일의회 미래대화' 결성·다음달 도쿄서 첫 모임(연합뉴스) |
| | | | 한일 차세대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 외교 현안 논의(연합뉴스) |
| |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준비위 이르면 다음 달 출범(연합뉴스) | | |
| 분류 | 일자 | 한국 | 러시아 |
| 한러 관계 | | | 러, 연해주서 대규모 군사훈련·한반도 긴장상황 대처 성격도(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미국 | 중국 |
|---------------------------------------|---|---|---|
| 미중 관계 | 4.18 | 美 남중국해 중국 견제에 무인 잠수정 투입 추진(연합뉴스) | 中, 남중국해에서 시위성 실전훈련...서방에 불개입 압박(연합뉴스) |
| | | | 中군용기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인공섬 첫 착륙·환자 수송(연합뉴스) |
| | | | 中, 바다 떠다니는 원전20기 건설 추진·남중국해 거냥(연합뉴스) |
| | | | 中 재무, "트럼프 비이성적" 반격 개사·트럼프, "무역협정 과거"(연합뉴스) |
| | 4.19 | 미국, 中군용기 남중국해 인공섬 착륙에 반발(연합뉴스) | 미국무부 한국과장 "중국, 사드 설명 들으려고 하지 않아"(연합뉴스) |
| | | | 라클리어 前 미국 태평양사령관, "한미중, 북급변시대 논의해야"(연합뉴스) |
| | 4.20 | | 영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美입장 지지·중국 발끈(연합뉴스) |
| | | | 폴슨 前미국 재무 만난 시진핑, 미중관계 양호·갈등 통제해야(연합뉴스) |
| | | | 中, 美전역 사정권 동평41 또 시험발사...다탄두 분리실험(연합뉴스) |
| | 4.21 | 미중 "北 5차 핵실험에 강력 반대"...도발저지 공조 논의(연합뉴스) | 中, 美전역 사정권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간접 시인(연합뉴스) |
| '너희의 진짜 숙내를 밝혀라...미중, 또 남중국해 실전(연합뉴스) | | | |
| 4.22 | 러셀 美차관보 "미중, 더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에 공감"(연합뉴스) | | |
| 분류 | 일자 | 미국 | 일본 |
| 미일 관계 | 4.18 | 美, 北한 5차 핵실험 징후 경계 감시 강화(연합뉴스) | |
| | 4.22 | | 닛케이 "오바마, 다음달 27일 히로시마 방문할 듯"(연합뉴스) |

| | | | |
|-----------|-----------|--|---|
| | 4.23 | 오바마, 日 히로시마 방문 언급 피했지만... 방문 가능성 커져(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미국 | 러시아 |
| 미러 관계 | 4.17 | | 마러 발트해 신경전·러시아가 미 공군기 근접 위험비행(연합뉴스) |
| | 4.18 | 마러중, 냉전 시대처럼 핵전력 경쟁 돌입(연합뉴스) | |
| | 4.19 | 마러 발트해 신경전 속 오바마-푸틴 전화통화(연합뉴스) | |
| | 4.21 | | 나토-러시아 고위급 대화 2년만에 재개... 심각한 이견 노출(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중국 | 일본 |
| 중일 관계 | 4.20 | | 日외무상 이달말 방중·대북제재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논의(연합뉴스) |
| | | 中리커창, 아베에 지진 위로 메시지...지원 의사 표명(연합뉴스) | |
| | 4.21 | 中, 아베의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침략역 사 반성하라"(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중국 | 러시아 |
| 중러 관계 | 4.20 | | 남중국해 중국 편드는 러시아...국제재판 소 판결 반대(연합뉴스) |
| | | 中 외교부장 "중러 동북아 전략적 균형 공 동수호해야"(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일본 | 러시아 |
| 일러 관계 | 0421 | | 푸틴 내달 6일 아베와 소치서 정상회담(연 합뉴스) |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4. 18.

■ 김형진 외교차관보 “한미동맹, 역경속에서도 공정한 책임분담”(연합뉴스)

-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이 역경 속에서도 공정한 책임 분담을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을 계속해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평화·안정의 명실상부한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 가리라고 믿는다”고 밝힘.
-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도전에 직면한 한·미동맹: 그 강인함’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동맹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왔고, 그때마다 그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다”고 말함.
- 이 같은 언급은 한·미 양국이 ‘공정한 책임 분담’(fair sharing of burden)을 통해 견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우회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됨.

2016. 4. 19.

■ 한미동맹 세미나, 北 5차 핵실험은 시간문제…中 사전경고해야(연합뉴스)

-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국제교류재단(KF) 공동 주관으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의 최대 화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었음.
- 한·미 양국의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시간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제재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함.

2016. 4. 20.

■ 주한美사령관 지명자, 핵우산 없으면 韓 핵무장 검토해야할 것(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함.

- 이는 미국의 대(對) 한국 핵우산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며 핵우산 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배치 방향에 대해 “주한미군 일부 부대를 지속적으로 순환배치하면서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정보자산과 정찰자산을 배치하고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5차 핵실험 등 북핵 대응방안 조율(연합뉴스)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된 가운데 한미 양국이 고위급 전략협의를 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시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율함.
-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청와대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의 도발 위협 상황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한미 양국은 이날 오찬까지 이어진 협의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대북 제재의 핵심인 중국과의 공조 확대 방안도 모색한 것으로 보임.

2016. 4. 22.

■ 갈루치, 北 핵능력 진전 땀 한일 핵무장 논의 정당화(연합뉴스)

-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능력을 진전시켜나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과 일본 내의 핵무장 논의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고 경고함.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핵농축과 재처리 제한을 위한 미국의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함.
-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벌써 네 번째 핵실험을 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했다”며 “나아가 핵무기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함.
- “이런 상황은 한국과 일본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논의에 비옥한 근거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두 나라에서 핵무기를 가지려는 논의를 정당화해줄 것”이라고 경고함. 현재 한국은 NPT상 비핵보유국으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만 재처리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웃인 중국은 핵보유국이고 일본은 비핵보유국이지만 재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합의한 원자력협정에서 그동안 사전동의 규정 등에 묶여있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길을 터주면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도록 함.

2016. 4. 23.

■ **한미일, 北 추가 핵실험 시 원유수출 전면차단 추진(연합뉴스)**

- 한국·미국·일본 3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3국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차관급 협의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재 결의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3국 관계 소식통이 밝힘.
- 한미일은 북한 고려항공 항공기의 영공통과 금지도 요구하기로 함. 3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이런 제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임.

나. 한·중 관계

2016. 4. 21.

■ **한중, 내일 6자수석 회동…정부, 北추기도발 억제 총력(연합뉴스)**

- 정부가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노력과 함께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기도발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섬.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한다고 밝힘.
-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기도발 억제, 유엔 안보리 결의(2270호)의 충실한 이행 등을 포함해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함.

2016. 4. 23.

■ **한중 6자수석, 북한 추가 핵실험 땀 추가적인 중대조치(연합뉴스)**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2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동을 갖고 북한이 5차 핵실험

- 힘을 포함해 또 다른 도발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 추가 핵실험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로 확인함.
 - 이번 회동에서는 한미중 3자협의 문제도 주요의제로 거론됨.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중국이 아직까지 3자협약에 동의한 상황은 아니지만, 한미중이 이런 식으로 연쇄협의를 한 것은 조금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함.
 - 이 당국자는 또 양측이 이번 접촉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했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6. 4. 20.

■ 유엔특별보고관, 위안부 문제 교과서 삭제·정치적 의도반영(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교과서 기술 내용에 개입하거나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유엔 담당관의 지적이 나옴.
- 20일 도쿄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 기술이 삭제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느낀다”고 말함.
- 최근 일본 내 언론·표현의 자유 실태를 직접 조사한 케이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민중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힘.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사건의 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삼가고 이런 심각한 범죄를 시민에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함.

■ 한일 국장급 협의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논의(연합뉴스)

-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던 채널인 양국 국장급 협의회가 20일 서울에서 개최됨.
- 외교부는 이날 정병원 동북아 국장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수행차 방한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났다고 밝힘.
- 이날 협의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따른 재단 설립 등 후속조치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가 논의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함.

■ 日의탄핵 특별법 제정·영해·EEZ 일방적 주장 강화 의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자국이 규정한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EEZ) 관리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외딴 섬 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일본 참의원은 국경 부근에 있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유인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일명 ‘외딴섬 보전법’)을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해 제정함.
- 외딴섬 보전법은 독도나 EEZ 자체에 관해서 직접 특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영해나 EEZ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서 한국·중국 정부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2016. 4. 21.

■ **‘한일의회 미래대화’ 결성…다음달 도쿄서 첫 모임(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한일의회 미래대화’라는 회의체를 만들고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임.
- 주일대사관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운영위원회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한일의회 미래대화 첫 회의를 다음달 17일 도쿄에서 열기로 결정함. 첫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등 11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측 참가자는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 등 11명임.
- 이번 미래대화 첫 회의에서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협력’,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한일 차세대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 외교 현안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의 차세대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임.
-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와 함께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양국 차세대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임.
- 이 행사에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일본 방위연구소를 비롯해 양국의 연구·교육기관과 언론에 종사하는 동아시아 관련 차세대 정책 전문가 10명(일본 7명, 한국 3명)과 시니어 정책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가할 것임. 참가자들은 북한의 최근 동향, 대북 정책,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전략 관계,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임.
- 국제교류재단은 “일본 내 지한(知韓)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준비위 이르면 다음달 출범(연합뉴스)

-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에 앞서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21일 전해짐.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후 외교부, 여성가족부와 민간인사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단설립 준비작업을 해옴.
- TF에는 민간측 인사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해 자문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여러 고견들을 경청하고 있다”며 정부가 물밑 의견수렴 작업을 해 왔음을 시사함.

라. 한·러 관계

2016. 4. 23.

■ 러, 연해주서 대규모 군사훈련…한반도 긴장상황 대처 성격도(연합뉴스)

- 러시아군이 23일(현지시간)부터 극동 연해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태평양함대 공보실이 밝힘.
- 공보실에 따르면 연해주 우수리스크 인근 세르게예프스크 훈련장에서 벌어진 훈련은 2개 기갑여단이 공격군과 방어군으로 나뉘어 실제 상황을 상정한 모의 전투를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됨.
- 일각에선 이번 훈련이 한반도 긴장상황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처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4. 18.

■ 美, 남중국해 중국 견제에 무인 잠수정 투입 추진(연합뉴스)

-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미국이 무인 잠수정 카드를 뽑아들었음. 덩치가 큰 일반 잠수함의 작전이 제한되는 얕은 천해(淺海)가 많은 남중국해에 무인 잠수정을 개발, 배치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임.
- 18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약 6개월 전부터 한때 극비였던 무인 잠수정 개발 프로그램을 공공연히 언급해 옴.

- 미 해군은 이미 지난해 가을 약 3m 길이의 반자동 잠수정을 공개했고, 올해 여름 시험 항행에 들어갈 계획임. 현재 개발 중인 무인 잠수정 일부는 2020년 이전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색 및 구조용이었던 기존 무인 잠수정과 달리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어뢰 등 무기를 탑재하게 될 것으로 보임. 미국의 무인 잠수정 개발은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등 잠재적 경쟁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굳히려는 노력으로도 평가됨.

■ 中, 남중국해에서 시위성 실전훈련...서방에 불개입 압박(연합뉴스)

- 중국군이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실전상황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함.
-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는 18일 훈련 실시지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지난 7일 남중국해 함대의 8개 항공병 사단을 동원해 복잡한 전자기 환경 하에서 돌격성 전투 훈련을 벌였다고 보도함. 이들 항공병은 전투기들의 엄호하에 목표 해상지점에 있는 다중의 적을 섬멸했다고 신문은 전함.
-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은 최근 이 같은 군사훈련과 함께 지속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며 서방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음.

■ 中군용기,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인공섬 첫 착륙...환자 수송(연합뉴스)

- 중국 군용기가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 처음으로 착륙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인민해방군 공식 홈페이지인 중국군망(中國軍網) 등은 18일 해군 초계기 1대가 전날 오전 중환자인 근로자 3명을 수송하기 위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어명 난사<南沙>군도) 내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어명 용수자오<永暑礁>)의 비행장에 긴급 착륙했다고 보도함.
- 중국 군용기가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 착륙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환구시보는 전함.

■ 中, 바다 떠다니는 원전 20기 건설 추진...남중국해 거양(연합뉴스)

- 중국이 동남아 각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를 염두에 두고 향후 약 20기의 해상 부동(浮動)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옴.
-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2일 “중국이 해상 이동이 가능한 부동 핵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남중국해 도서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란 전문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함. 환구망(環球網)도 중국선박중공업집단(船舶重工·CSIC)이 이미 첫번째 부동 핵발전소 설

- 계에 착수했다면서 앞으로 총 20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보도함.
- 중국이 한발 더 나아가 남중국해에 핵발전소까지 투입한다면 동남아 국가와 미국, 일본 등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中 재무, “트럼프 비이성적” 반격 개시…트럼프, “무역협정 파기”(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 주자가 노골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맞서 중국 정부가 각료를 내세워 공개로 반격을 개시함.
-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러우지웨이 중국 재무장관은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는 비이성적인 타입(type)”이라고 비판함.
- 이는 트럼프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45%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데 대한 반응이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발언을 중국 언론이 비판하기는 했으나, 중국 정부가 공개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2016. 4. 19.

■ **美 국무부 한국과장 “중국, 사드 설명 들으려고 하지 않아”(연합뉴스)**

- 미국이 중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설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18일(현지시간) 지적함.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도전에 직면한 한·미동맹: 그 강인함’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함.
- 램버트 과장은 “우리는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는 한편으로, 중국 정부에도 사드 전문가들을 보내 인민해방군과 당, 정부 관리들에게 사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에 장착된 탐지레이더가 신장(중국의 중북부 지역)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며 “만일 중국 관리들이 우리의 전문가들과 만난다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램버트 과장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중국 관리들은 미국 전문가들과 만나 사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램버트 과장은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 중인 사드 협의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심을 놓고 협력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미국, 中군용기 남중국해 인공섬 착륙에 반발(연합뉴스)**

-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 중국 군용기가 처음 착륙한 것에 대해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1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 군용기가 아픈 근로자 3명을 이송하기 위해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용수자오<永暑礁>)에 착륙한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이 왜 민항기가 아닌 군용기를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앞서 확인한 대로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내 기지에 군용기를 배치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하라”고 촉구함.

2016. 4. 20.

■ 라클리어 前 미국 태평양사령관, “한미중, 北급변사태 논의해야”(연합뉴스)

- 새뮤얼 라클리어 전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함.
-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주최 세미나에서 향후 한반도 통일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힘.
-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 붕괴시에 대비한 비밀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중국에 물어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돼 북한이 붕괴되거나 변화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중국이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또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함. 그러면서 “3국 간의 그런 대화에는 엄청난 가치가 담겨 있다”고 주장함.
-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이어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바로 미 본토인 로스앤젤레스 도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한반도(북한) 핵무기”라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함.

■ 영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美입장 지지…중국 발끈(연합뉴스)

- 영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과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섬.
-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국무상(차관)은 18일 워싱턴에 있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중국의 강경한 태도로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뒤웨이(多維)가 19일 보도함.
- 이에 대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당일 중국이 PCA의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중국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겠다고 말함.

■ 폴슨 前미국 재무 장관 시진핑, 미중관계 양호…갈등 통제해야(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현재 미·중 관계의 발전은 총체적으로 양호하지만, 갈등을 잘 통제해야 앞으로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 있다고 강조함.
- 시 주석은 19일 중국을 찾은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을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으로 초대해 가진 회동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20일 전함.
 - 시 주석은 “중미(미중) 양국이 양자, 지역 글로벌 현안에서의 협력을 통해 신형대국 관계 구축의 강력한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신이 3월 미국 방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도 강조함. “앞으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소통 및 협력 강화, 갈등의 적절한 통제·관리를 통해 미·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中, 美전역 사정권 동평-41 또 시험발사…다탄두 분리실험(연합뉴스)

- 중국이 또다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동평(東風·DF)-41’을 시험발사했다고 중국 신랑망(新浪網) 등이 미국 안보전문 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WFB)을 인용해 20일 보도함.
- 이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정찰위성과 지상 감시기 등이 지난 12일 오전 시험발사된 동평-41을 포착했다고 말함.
- 이 미사일에서 두 개의 각개 유도형 탄두가 분리된 사실도 확인됨.

2016. 4. 21.

■ 미중 “北 5차 핵실험에 강력 반대”…도발저지 공조 논의(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21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양자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미·중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힘.
- 성김 대표는 “미·중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전면적인 이행의 중요성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강조함.

■ 中, 美전역 사정권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간접 시인(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최근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평(東風·DF)-41’을 추가로 시험발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함.
- 중국 국방부는 21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난 12일 ICBM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내에서 계획에 따라 과학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이러한 실험은 특정 국가와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이 보도함.

- 그러나 국방부는 일부 매체가 시험 지역을 남중국해 부근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완전히 추측이라고 지적함.

2016. 4. 22.

■ ‘너희의 진짜 속내를 밝혀라’...미·중, 또 남중국해 실전(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신경전을 전개함.
- 22일 AP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대학을 방문해서 한 강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인공섬 조성사업을 벌이고 전초기지 군사화를 강화하며 “지역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함. 또 이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의 의도에 의문을 던졌는데, 나는 오히려 미국에 계속해서 남해(남중국해) 긴장을 과장하고 군사적 배치를 강화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쏘아붙임. 이런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동남아 국가들을 향해 “남해의 평화안정은 기회를 틈탄 역외국가(미국 등)의 개입으로 파괴될 수도 있다”며 경고음을 보냄.

■ 러셀 차관보 “미·중, 더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에 공감”(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미·중 양국 간 협력이 증가하고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힘.
-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대학에서 강연하는 자리에서 “북한 문제는 미·중 양국의 공통 현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러셀 차관보는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추수로 발생하는 심대한 안보위협을 막기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함.
-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 문제의 성격에 대해 “과거 6자회담을 통해 부침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다는 식으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며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음을 시사함.

나. 미·일 관계

2016. 4. 18.

■ 美·日, 북한 5차 핵실험 징후 경계·감시 강화(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은 18일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제5차 핵실험 징후가 보이는 북한에 대한 경계·감시를 강화하기로 함.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이처럼 북한의 도발 행위에 협력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이번 협의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외무차관 협의에 하루 앞서 열림.

2016. 4. 22.

■ 닷케이 “오바마, 다음달 27일 히로시마 방문할 듯”(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7일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하는 방안을 일본측과 조율 중이며 이런 일정이 성사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동행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지(닛케이)이 22일 보도함.
- 닷케이(닛케이)는 복수의 미국 고위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26~27일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히로시마를 찾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같이 전함.
-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측과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함.

2016. 4. 23.

■ 오바마, 日 히로시마 방문 언급 피했지만..방문 가능성 커져(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방문 때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할 지에 대해 명시적 입장표명을 피함.
- 영국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22일(런던 현지시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27일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조율 중’이라는 일본 닷케이신문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음.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아시아를 방문할 때까지 아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기다려달라”고 말함.
- 한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가는 쪽으로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번 방문이 사과로 비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를 하는데 신경쓰고 있다”고 말함.

다. 미·러 관계

2016. 4. 17.

■ 미·러 발트해 신경전...러시아기, 미 공군기 근접 위협비행(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잇단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미국은 발트해에서 훈련 중이던 자국 구축함에 러시아 전투기가 초근접 비행하는 위험스런 행동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러시아 공군기가 미 정찰기를 위협하게 가로막았다고 비판함.
- AFP 통신에 따르면 로라 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미군기는 국제공역에서 작전 중이었으며 러시아 영토로 진입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힘.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미 정찰기 RC-135기가 일상적인 경로로 비행하던 중에 러시아 수호이(Su)-27기가 끼어들어 발생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함.
- 이번 사건은 미국이 발트해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구축함에 러시아 전투기가 약 10m 거리까지 접근하며 위협적으로 비행했다고 비난한 뒤 벌어짐. 하지만 이 때도 러시아는 자국 공군기들의 비행이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함.

2016. 4. 18.

■ 미·러·중, 냉전 시대처럼 핵전력 경쟁 돌입(연합뉴스)

-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대 핵 강국이 예전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핵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뉴욕타임스(NYT), 더내셔널인터라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러, 중 3개국은 탄두 소형화와 폭발력 축소 및 정밀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핵전력 현대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냉전 시대로 복귀한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완전히 새로운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며, 3대 핵 강국 간의 핵 경쟁 상황에 우려를 표시함.

2016. 4. 19.

■ 미·러 발트해 신경전 속 오바마-푸틴 전화통화(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전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두 정상은 시리아 내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이슈 등에 대해 다소 열띤 대화를

나섰다”고 밝힘.

- 어니스트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2016. 4. 21.

■ 나토-러시아 고위급 대화 2년만에 재개...심각한 이견 노출(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사태로 긴장 관계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가 2년 만에 고위급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상호 심각한 이견을 노출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남.
- 나토 28개 동맹국 대사들과 러시아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나토-러시아 위원회를 개최함.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나토와 러시아 측은 상호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문제 등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였다”고 밝힘.
-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인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나토 주재 대사는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 접경에서 군사행동을 줄이지 않으면 나토-러시아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그는 미국이 발트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그러나 대화 채널은 유지하기로 함.

■ 러 핵잠수함 유럽 출현 급증에 서방과 긴장 고조(연합뉴스)

- 대서양과 북해, 지중해에서 러시아 공격형 핵 잠수함의 출현 횟수가 급증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음.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6함대를 포함해 미 해군 유럽작전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지휘관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잠수함의 이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 유럽 주둔 미 해군 최고 사령관인 마크 퍼저슨 제독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가을을 기준으로 러시아 핵 잠수함의 순찰 강도가 전년보다 50% 높아진 데 대응한 것이라고 밝힘.

라. 중·일 관계

2016. 4. 20.

■ 日외무상 이달말 방중...대북제재·한중일정상회의 일정 논의(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오는 29일 중국을 방문해 30일 왕이(王毅)

-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전함.
- 기시다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은 북한이 지난 1월 핵실험을 한 이후 처음임.
 -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조율 등을 위해 올 들어 중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미뤄져 왔음.
 - 기시다 외무상은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행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중리커창, 아베에 지진 위로 메시지…지원의사 표명(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0일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등의 강진 피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중국 관영 CCTV를 인용해 보도함.
- 이 총리는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고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뜻을 피력함.
- 더불어 “귀국(일본) 정부와 인민은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흥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임. 중국 정부 수뇌부가 아베 총리에게 지진과 관련한 위로 메시지를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임.

2016. 4. 21.

■ **中, 아베의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침략역사 반성하라”(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의 제사에 맞춰 공물을 보낸 데 대해 “일본이 침략역사를 철저히 직시하고 깊이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화춘잉(華春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이번 공물 봉납에 대한 중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스쿠니신사는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A급 전범들에게도 공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또 일본은 군국주의와 철저히 선을 긋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국가, 및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함.

마. 중·러 관계

2016. 4. 20.

■ **남중국해 중국 편드는 러시아…국제재판소 판결 반대(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던 중국이 러시아를 우군으로 끌어들임.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중국·러시아·인도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문제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20일 보도함.
- 라브로프 장관은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직접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함.

■ 中 외교부장 “중·러, 동북아 전략적 균형 공동수호해야”(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왕 부장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가진 양자 회담에서 “중·러 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20일 전함.
- 중국이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훼손'을 거론해 왔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사안에 대한 양국 간 공동대응 필요성도 함께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옴.

바. 일·러 관계

2016. 4. 21.

■ 푸틴, 내달 6일 아베와 소치서 정상회담(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6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20일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이날 주 러시아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5월 6일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소치 방문이 양국 상호 이익에 기반한 양자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함.
- 또 “일본과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 과제의 하나”라고 말함.

Ⅲ 북한인권

■ 개요

| 분류 | 일자 | 내용 |
|---------------------------------------|------|--|
| 북한인권 국제동향 | 4.19 | 북한주민 '정보의 자유' 위한 국제연대기구 결성한다(연합뉴스) |
| | 4.20 |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 행동 나설때...다양한 처벌 모색해야(연합뉴스) |
| | | '제1차 세계 탈북자 대회 29일 서울서 열린다(연합뉴스) |
| | | 해외 북한노동자 인권보호, 대북 제재 효과 높일 것(연합뉴스) |
| | 4.21 | 유럽탈북민단체,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처벌 촉구(연합뉴스) |
| | 4.22 | 英, 북한 '인권 우선 대상국' 지정(미국의소리) |
| 북한 실상 알린 편지로 7년간 강제노역한 베네수엘라 시인(연합뉴스) | | |
| 북한인권 내부동향 | 4.18 | 북한인권정보센터 "北 인권범죄 절반 자의적 체포와 구금"(연합뉴스) |
| | 4.20 | 北, 김정은 지시로 '하나원' 설립해 재입북자 사상교육(연합뉴스) |
| | 4.21 | 北 집단 탈북 종업원 동료 7명 평양서 CNN과 인터뷰(연합뉴스) |
| | | 북 간부, 김정은 재입북 탈북자 선전에 불만(자유아시아방송) |
| | 4.22 | 유엔, 北 작년 곡물생산 11% 감소·주민 41% 영양실조(연합뉴스) |
| 북한인권 남한동향 | | |
| 탈북자 이산가족 | 4.20 | 北 김일성 생일 비상경계령에도 알가족 탈북(자유아시아방송) |
| 남북자 국문교류 | 4.21 | 정부, 6·25 남북자 217명 추가·총 4천640명(연합뉴스) |
| 대북지원 | 4.20 | 유럽연합, 북한 농촌에 30만 유로 지원(미국의소리) |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4. 19.

■ 북한주민 '정보의 자유' 위한 국제연대기구 결성한다(연합뉴스)

-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와 인권유린에 대응해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국제연대기구가 한국과 일본 등 각국의 비정부기구(NGO)를 주축으로 결성됨.
- 국내에서 활동 중인 열린북한방송과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등으로 구성된 대북방송협회 강신삼 회장은 19일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대북인권단체들과 손잡고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 강 회장은 국제연대기구 출범 배경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서 최악으로 치닫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유입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설명함.
- 대북방송협회를 비롯한 통일아카데미, NK위치, 북한전략센터 등 4개 단체와 일본의 납치피해자 해결을 위한 대북방송인 ‘시오카제’(JSR)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국내외 7~8개 NGO가 국제연대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국제연대기구의 활동 목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여러 국제단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해 북한에 더욱 많은 정보를 유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 4. 20.

■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 행동 나설때...다양한 처벌 모색해야(연합뉴스)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하며 북한 정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 논의됨.
- ‘책임 대 개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은 사실 규명을 위한 토론을 넘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북한 지도자 처벌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르도 국제관계학 교수는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파르도 교수는 EU의 대북 원조는 엄격하게 인권 개선과 비핵화에 연계해야 하며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EU가 조사에 나서는 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함.

- 유럽의회 인권소위 부위원장인 라즐로 토케스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EU는 유엔과 아울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며 특히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함.

■ ‘제1차 세계 탈북자 대회’ 29일 서울서 열린다(연합뉴스)

- 김정은 독재정권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세계 탈북자 대회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됨.
- 세계 탈북자 대회 발기자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9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글로리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1차 세계 탈북자 대회를 연다”고 밝힘.
- 탈북자들이 2013년부터 추진한 이 대회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의 탈북단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와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참석한다고 안 소장은 전함.

■ 해외 북한노동자 인권보호, 대북 제재 효과 높일 것(연합뉴스)

-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對)북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브뤼셀의 싱크탱크인 유럽연합(EU)-아시아 센터가 19일(현지시간) 개최한 패널 토론회에서 지난 10년간 지속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됨.
-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렘코 브뢰커 한국학과 교수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재벌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함.
- 라이덴대학 한국학과장과 동아시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브뢰커 교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착취 당하고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국제법과 EU 규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길이며, 이로써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런 EU의 조치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 브라질 등 남미서 북 인권행사 개최(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워싱턴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브라질 상파울로에 이어 20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한다고 밝힘.
- 행사를 주최한 민주평통 브라질 협의회 관계자는 북한 인권 전문가를 초청한 행사에 100여명이 참석했다면서 남미 지역에서 좀처럼 열리지 않았던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함.
- 최근 브라질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을 경계하고 인권 탄압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2월 브라질 의회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문제가 거론되기도 함.
- 한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등 남아메리카의 주요 국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행사가 연이어 열리는 점을 주목한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종식시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미 국가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겠다고 덧붙임.

2016. 4. 21.

■ 유럽탈북민단체,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처벌 촉구(연합뉴스)

- 유럽의 탈북민 단체인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유럽총연)와 네덜란드체류조선망명자협회(화조회)는 북한 인권탄압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처벌할 것을 촉구함.
- 탈북민들은 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9~20일 양일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인권 유린 실태를 폭로하는 집회와 사진전을 개최함.
- 탈북민단체는 집회 현장에서 배포한 성명서에서 북한정권은 지난 70년간 독재를 일삼으며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은 아랑곳하지 않는 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하루속히 김정은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6. 4. 22.

■ 英, 북한 '인권 우선 대상국' 지정(미국의소리)

- 영국이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VOA는 영국 외교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29개국과 함께 인권 우선 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으로 지정했다고 전함. 영국이 인권 우선 대상국을 지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임.
- 영국 외교부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계속 거부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정했다고 설명함. 그러면서 앞으로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북한 실상 알린 편지로 7년간 강제노역한 베네수엘라 시인(연합뉴스)

- 21일 베네수엘라 현지 일간지인 '라 보스'에 따르면 신문은 지난 11일 시인이자 언론인인 알리 라메다가 북한에서 겪은 일화를 2개 면에 걸쳐 소개함.
- 열혈 공산주의자였던 라메다는 1965년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해, 당시 김일성 주석의 강연 내용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소개함. 아파트를 비롯해 기사가 딸린 차량까지 받는 등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함. 그러나 북한 당국이 편지를 검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주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등 북한이 자신이 생각하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털어놓는 바람에 체포됨.
- 라메다는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령을 받고 침투한 공작원이라는 혐의로 노동교화형 20년을 선고받음. 이후 1974년 9월 석방될 때까지 7년간 북한 사리원 수용소에 수감돼 하루 12시간씩 강제노역을 함.
- 차량 부품 조립작업에 투입된 그는 강제노역의 고통을 잊기 위해 시를 짓고 암기함. 석방돼 베네수엘라로 돌아온 뒤 당시 암기한 시를 묶어 '슬픔에 젖은 여행객'이라는 시집을 냄.
- 신문은 1995년 11월 수도 카라카스에서 생을 마감한 라메다씨가 최고 지도자와 감히 다른 생각을 하다가 반동으로 간주돼 중형이 선고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몸소 체험했다고 전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4. 18.

■ 북한인권정보센터 “北 인권범죄 절반, 자의적 체포와 구금”(연합뉴스)

- 북한 내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범죄의 절반 정도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18일 민간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ADB)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

- 13년간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북한 인권범죄 사례 5만2천735건 중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2만5437건으로 48.2%에 달함.
- 이어 이동(주거)의 자유 관련 침해가 7천244건(13.7%), 생명권 침해 6천59건(11.5%),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사건 4천545건(8.6%),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4천99건(7.6%) 순이었음.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유엔 COI 설치(2013년) 이후로도 북한 인권상황은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식량권 문제, 수용소, 외국인 납치 사건 빈도는 감소했으나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 등의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힘.

2016. 4. 20.

■ 北, 김정은 지시로 ‘하나원’ 설립해 재입북자 사상교육(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함흥시 남부에 있는 동흥산 구역에 ‘탈북했다 재입북한 사람 등을 재교육하기 위해 하나원’이라는 이름의 기관을 설립했다고 대북매체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20일 주장함.
- 탈북자 출신인 김 대표는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단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하나원이 한국에만 존재한 줄 알았는데 북한에도 하나원이 세워졌다”고 밝힘. 김 대표는 “북한 하나원은 지난 1월 김정은의 지시로 함흥에 설립됐으며, 기존 인민무력부 외화벌이 금성지사 건물(2층짜리 200평)을 압수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곳에는 현재 남조선으로 갔다가 되돌아온 재입북 탈북자 5명과 외국인 2명(중국에서 납치 추정)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곳은 (한국 하나원처럼) 사회정착 교육이 단기간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교육생의) 사상개조를 위해 만들어진 장기 교육장”이라며 “교도소처럼 단체복을 입고 (기준에) 한국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을 비판하고 사회주의가 좋다는 취지로 생활총화(자아비판)와 토론을 한다”고 주장함.
- “북한 하나원은 외부와 차단돼 있어 교육생은 외출할 수 없지만, 가끔 농장일이나 간부의 집안일 등 사회적 노동을 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창밖도 내다볼 수 없다”며 “교육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시요원의 지시를 받으며 생활해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 정권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일부 탈북민들을 체제 결속에 이용하기 위해 한국의 하나원과 이름이 같은 재교육기관을 만들었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이라고 김 대표는 덧붙임.

2016. 4. 21.

■ **北 집단 탈북 종업원 동료 7명 평양서 CNN과 인터뷰(연합뉴스)**

-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과 관련해,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7명의 여종업원이 평양에서 CNN과 단독 인터뷰를 가짐.
- CNN은 자사 평양 주재 특파원이 지난 18일 이들과 고려호텔 로비에서 만났다면서 집단 탈출자들의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고 21일 보도함.
- 그동안 이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나머지 종업원이 몇 명인지, 또 이들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를 놓고 궁금증이 일었지만, 이날 CNN 보도를 보면 나머지 종업원은 7명이며 이들 모두 사건 직후 평양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임.
- 이들 종업원은 이번 사건이 남한 당국의 지시하에 한국의 한 사업가와 북한 지배인이 짜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CNN은 전함.
- 하지만 한국 통일부는 CNN의 입장 요청에 “탈출한 13명은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없이 자발적으로 탈출을 감행했다”며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함.

■ **북 간부, 김정은 재입북 탈북자 선전에 불만(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재입북 탈북자 과대 선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북수의 북한 소식통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제3국에 머무르는 북한 소식통은 21일 가진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이 남조선에 나갔다 다시 돌아온 탈북자들을 잘 대우해준다고 텔레비전에서 자랑하면서 간부들 속에서 말이 많았다”고 말함. 이 소식통은 2012년 6월 남한에서 살다 북한으로 귀환한 박정숙 여성의 실례를 들면서, “당시 박정숙이 중앙텔레비전에 출연해 인터뷰할 때 평양시민들은 물론 간부들도 깜짝 놀랐다”면서 “어떻게 60대의 피부가 저렇게 좋을 수 있냐”고 부러워했다고 말함.
- 한편, 2013년 라오스에서 복송된 9명 탈북 청소년들이 처벌받지 않고, 최근 한덕수 경공업대학과 장철구 상업대학 등 유명 대학에 진학하자 평양 청소년들 속에서는 심경변화가 이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에 체류중인 한 평양 주민은 “남조선에 가려고 했던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평양관광을 다니고, 또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을 두고 일부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 가자면 나도 탈북했다가 다시 와야겠다’는 농담도 돈다”고 말함.
- 김 제1비서의 과대선전으로 청소년들 속에서 탈북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지고, 오히려 ‘해볼만한 모험’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이 주민은 지적함.

■ **유엔, 北 작년 곡물생산 11% 감소...주민 41% 영양실조(연합뉴스)**

- 북한의 지난해 총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유엔은 20일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11% 줄어든 506만t(도정 전 기준)에 그쳤다고 밝힘.
- 이는 최근 2년간 계속된 가뭄 탓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곳도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설명함.
- 곡물 생산량이 줄면서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도 감소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1~3월 주민 1명당 식량을 하루 370g 배급함. 이는 유엔의 최소 권장량인 600g은 물론, 북한 당국의 목표치인 573g에도 못 미치는 양임.
-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2014~2016년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은 41.6%로 2005~2007년 35.5%에 비해 6.1%포인트 증가함.

2016. 4. 22.

■ 국제 탈북민연대 북한인접 국경시찰(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제 탈북민 연대’(국민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5일동안 북한과 인접해 있는 국경연선 지대들을 시찰함.
-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 북한정권의 창시자 김일성의 생일 4.15일과 북한군 창건일 4.25일을 맞아 초 강력 경계태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장 상황은 조금 느슨했다고 ‘국민연’ 관계자는 전함.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시찰 중에 밀수로 압록강을 몰래 넘어온 북한주민 세 명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북한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국의 통제와 감시, 공포심리를 조장하기 위한 세뇌교육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물리적인 국경연선의 보안보다도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공포심리가 탈북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보안장치였다고 이야기함.
- ‘국민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밀수 때문에 국경을 넘어온 세 명의 북한주민들에게 프리엔케이(자유북한)신문을 보여줌. 두 명의 여성은 아예 기겁을 한 얼굴로 신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나마 한 명의 남성은 조금 용기를 내어 신문을 펼쳐 봄. 신문을 읽어본 그 남성은 이런 신문이 세상에 있었냐며 신기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히 운세와 좋은 글이 실린 지면을 읽고는 그 페이지를 찢어서 가져가도 되냐고 문의하기도 함. 또한 김정은의 호화사치를 다룬 기사 면에서는 주위의 눈치가 보이는지 잠시 멈칫하고 그냥 스쳐버리는 반응을 보였고 신문의 재질을 보고는 텀부라(튀김) 포장지 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여 주위에 웃음을 남기기도 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장이 풀어진 후 이런 신문이 북한 내에 배포가 된다면 읽어보겠다는 질문에는 수량이 적으면 보위부의 감시가 있어 소장하기를 두려워하겠지

만, 대량으로 북한지역에 배포가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읽어볼 것 같다고 답변함. 그러면서 신문을 읽어본 후에는 태워버려도 되기 때문에 후안이 남지 않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임.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4. 20.

■ 北 김일성 생일 비상경계령에도 일가족 탈북(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김일성 생일(4월 15일)인 태양절을 맞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특별경비주간을 설정하고 비상경계령을 발동했음에도 일가족 동반 탈북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특별경비주간에 내린 비상경계령에 따라 국경지역 도로와 산길까지 모두 통제되고 있지만, 무산군에서 4월 15일 두 가족 7명이 밤새 종적을 감췄다”며 “국가보위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지만 (가족을 찾을 수 없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다른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설령 특별경비를 진행한다 해도 명절이면 근무를 맡은 보위부 요원과 국경경비병들부터 술에 취해 있어 경비망이 허술하다”고 지적함.

2016. 4. 21.

■ 정부, 6·25 납북자 217명 추가·총 4천640명(연합뉴스)

- 정부는 21일 ‘제21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서면회의 방식으로 열어 217명을 6·25 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힘.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4천640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을 받음.
- 이번에 새로 인정을 받은 217명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어업인이 97명으로 44.7%를 차지했고, 학생 37명(17.1%), 상공업이 24명(11.1%) 등의 순이었다. 또 일반공무원은 12명(5.5%), 정치인도 1명이 포함됨.
- 연령별로는 20대가 104명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했고, 10대 69명(31.8%), 30대 26명(12.0%)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41명(18.9%), 경기 31명(14.3%) 등의 순이었음.
- 정부는 현재까지 총 5천505건의 신고를 접수해 5천186건을 처리함. 이 가운데

4천640명을 납북자로 결정하고, 126건은 납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420건에 대해선 판단 불능이라고 결정함.

5. 대북지원

2016. 4. 20.

■ 유럽연합, 북한 농촌에 30만 유로 지원(미국의소리)

- 유럽연합(EU)이 북한 농촌지역의 재난관리 개선 등을 위해 30만 유로(3억8천500만 원가량)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EU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대북 지원 자금은 국제적십자사(IFRC)에 전달돼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 대비능력 개선과 보건, 식수, 위생 사업에 쓰임. 특히 재난관리 사업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비와 예방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임.